SAEGAERO EDUCATION

Stage 10 Fast Frog

Cover Note & 본문 번역

Cover Note	
About this Book (책에 대하여)	- 개구리는 최고가 되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개구리는 가장 빠르게 달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탈것을 이용해 경주에서 이기려 해요. 마침내 개구리는 맞수 치타를 만나고, 개구리가 탄 로켓이 폭발하자 개구리는 빠르면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Talking Points (이야기해 볼 부분)	- 3쪽부터 5쪽까지를 함께 읽고 이 이야기가 어떤 동화와 비슷한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해 보세요. - 8쪽의 개구리가 부른 승리의 노래에서 라임이 맞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est'로 끝나는 다른 단어를 말할 수 있나요? - 아이가 자신의 속도에 맞게 책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Read aloud (소리 내어 읽기)	- 14쪽부터 15쪽까지를 함께 읽으세요. 개구리가 치타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이가 생각의 근거를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After reading (책을 읽고 나서)	- 함께 이 이야기의 교훈을 찾아보세요. 왜 빨리 가는 것이 항상 좋은 생각이 아닐지 이야기해 보세요. - 토끼나 개, 치타처럼 빠른 동물을 도서관이나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세요.

Story Book (본문번역)

p3	1. 개구리는 빨라 개구리는 뭐든지 최고가 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빨리 달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달리기는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확실히, 개구리는 친구 뱀, 도마뱀은 물론이고 달팽이와 거북이보다 빨랐어요. 개구리는 언제나 친구들을 가뿐하게 이겼어요.
p4	그리고 어느 날, 토끼가 옆집에 이사를 왔어요. '아하!' 개구리가 생각했어요. '달리기 시합을 할 새 상대다! 새로 이길 상대! 한번 만나러 가 봐야겠어.' "만나서 반가워, 개구리야." 토끼가 말했어요. "나도." 개구리가 말했어요. 토끼가 약간 날쌔 보인다는 것은 개구리는 인정해야 했어요.
p5	"저기, 토끼야." 개구리가 말했어요. "달리기 시합할래?" 그 질문에 조금 놀랐지만, 토끼는 달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좋아. 여기서 저 고목까지 달리는 건 어때?" "아주 좋아." 개구리가 말했어요. "제자리에, 준비, 시작!"
p6	하지만 토끼는 금세 개구리를 따라잡았고, 시합에서 가뿐하게 이겼어요. 개구리는 화가 났어요! 토끼는 개구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어요. '토끼를 이길 방법을 찾아야 해.' 개구리가 생각했어요. '훨씬 더 빨라야 해.'
p7	개구리는 고민했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음날, 개구리는 새 자전거를 타고 토끼를 찾아갔어요. "달리기 시합 한 번 더 할래?" 개구리가 말했어요. 토끼는 머리를 긁적였어요. "글쎄..... 나는 탈것이 없지만..... 안될 거 없지."
p8	이번에는 개구리가 가뿐하게 이겼어요. 개구리는 정말 신이 나서, 승리의 춤을 추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어요. "내가 제일 빨라! 내가 최고야! 가슴에 걸 메달이 있어야겠어!"
p9	2. 개구리는 더 빨라 "개구리야." 토끼가 다음날 말했어요. "내 친구, 사냥개를 아니? 길 아래쪽에 새로 이사 왔어." 사냥개가 꽤 빨라 보인다는 것을 개구리는 인정해야 했어요. '오호!' 개구리가 생각했어요. '달리기 시합을 할 다른 상대다. 이길 다른 상대.' 개구리는 바로 본론부터 말했어요. "사냥개야, 달리기 시합할래?"
p10	"문제없지." 사냥개가 말했어요. "저 큰 바위까지 달려갔다가 다시 오는 건 어때?"

	"아주 좋아." 개구리가 말하고는 자전거에 올라탔어요. "제자리에, 준비, 시작!" 개구리가 소리쳤고, 둘은 뛰어나갔어요. 개구리는 순조롭게 시작했지만, 사냥개는 금세 따라잡았어요.
p11	사냥개는 손쉽게 시합에서 이겼어요. 개구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사냥개를 이길 방법을 찾아야 해.' 개구리는 생각했어요. '훨씬, 훨씬 빨라야 해.' 개구리는 고민했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p12	다음 날 아침, 개구리는 사냥개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시합 한 번 더 할래, 사냥개야?" 개구리가 말했어요. "글쎄....." 사냥개가 말했어요. "나는 크고 멋진 자동차가 없지만..... 그러자!" 이번에는, 개구리가 가뿐하게 이겼어요.
p13	물론, 개구리는 또 승리의 춤을 추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어요. "내가 제일 빨라! 내가 최고야! 조끼에 달 메달이 있어야겠어!"
p14	3. 개구리가 지다 "개구리야." 사냥개가 그날 오후에 말했어요. "내 친구, 치타를 아니? 새로 이사 왔는데, 글쎄, 달리기 시합을 정말 좋아해!" 개구리는 치타가 힘세고 키가 크고 늘씬하고 뛰어나고 아주, 아주 빨라 보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야호 야호!' 개구리가 생각했어요. '이거 정말 재미있을 거야!'
p15	"안녕, 치타." 개구리가 말했어요. "네가 달리기 시합을 좋아한다고 사냥개가 그러던데." "아, 정말 좋아하지." 치타가 말했어요. "좋아." 개구리가 말했어요. "내 차를 가져올게." 치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씩 웃기만 했어요.
p16	시합이 결정되었어요. 치타의 집 뒤뜰부터 연못까지 쭉 달리기로 했어요. 개구리는 자동차의 속도를 올렸어요. "제자리에, 준비, 시작!" 개구리가 소리쳤고, 먼지 구름 속에서 출발했어요. 치타는 한걸음에 개구리를 따라잡았어요.
p17	막상막하였지만, 치타가 이겼어요. 개구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개구리는 집으로 곧장 돌아와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개구리는 혼자 있고 싶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은지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p18	'치타를 이길 방법을 찾아야 해.' 개구리가 계속 생각했어요. '훨씬, 훨씬, 훨씬 더 빨라야 해.' 개구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했고,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큰 생각이었어요.

p19	개구리는 일주일 내내 도서관에서 어려운 책을 읽으며 보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온갖 희한하고 재미있는 물건들을 샀어요. 그러고 나서 개구리는 정원 창고 문에 표지판을 걸었어요. '절대 방해하지 마시오.'
p20	그리고 개구리는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일주일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개구리는 매일 창고 안에서 덜거덕거리고 쿵쿵거렸고, 긁어대고 톱질을 했어요. 개구리의 친구들은 모두 개구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싶어했어요. 친구들은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지만, 개구리는 문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p21	마침내 개구리는 준비가 다 되었어요. 개구리는 해가 진 후 창고 밖으로 나와 치타의 문 밑 틈에 쪽지를 넣어두었어요. '치타, 나와 시합을 또 하겠다면, 내가 가뿐하게 이길 거야.' 물론, 치타는 이렇게 허풍 떠는 쪽지를 거절할 수 없었어요! 모두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어했어요.
p22	4. 개구리의 사고 치타는 개구리가 만든 것을 보고 약간 깜짝 놀랐어요. "아, 뭐. 이기는 것보다 참여한 것에 의미를 둬야지." 치타가 말했어요. "하!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겠지." 개구리가 말했어요.
p23	그리고 개구리는 직접 만든 로켓에 올라 소리쳤어요. "제자리에, 준비, 시작!" 치타는 달리기 시작했어요. 개구리는 '출발' 버튼을 엄지손가락으로 힘차게 눌렀어요.
p24	치타는 저 멀리 가면서 점점 작아졌지만, 개구리의 로켓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로켓은 덜거덕거리고 철컥거렸어요. 그리고는 꼬르륵거리고 끙끙거렸어요. 그리고는 흔들거리고 휘청거렸어요. 그리고는..... 꽝! 폭발했어요. 로켓의 조각들이 온 사방으로 날아갔어요.
p25	개구리도 날아갔어요. 개구리는 공중으로 점점 더 빨리 날아갔어요. 그리고 첨벙! 풍덩! 개구리는 연못 한가운데에 떨어졌어요. 치타는 헉헉거리며 다가왔어요. "잘했어, 개구리야." 치타가 말했어요. "이번엔 네가 가뿐하게 날 이겼구나."
p26	하지만 개구리는 승리의 춤을 추지 않았어요. 승리의 노래도 부르지 않았어요. 개구리는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대신 연못 밖으로 기어 나와 이렇게 말했어요. "꼬르륵." 그러고 나서 개구리는 눈을 감고 기절해 버렸어요.
p27	5. 개구리의 뒷이야기 개구리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을 때, 친구들이 모두 개구리를 보러 왔어요. "기분이 어때?" 친구들이 물었어요.

	"끔찍해." 개구리가 말했어요. "아 저런. 하지만 신경 쓰지 마. 선물을 가져왔거든. 너는 정말, 정말 받을 자격이 있어." 친구들이 말했어요.
p28	선물은 바로 메달이었고, 메달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개구리에게, 엄청나게 날쌘 속도를 기리며.' "고마워." 개구리가 목이 메어 말했어요. "몸이 더 좋아지면 매일 걸고 다닐게. 그렇지만....." 개구리가 말했어요. "빠르게 달리는 것은 그만두기로 했어.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 더는 이길 상대가 없어."
p29	개구리의 친구들은 정말 행복했어요. 친구들은 개구리가 다음번엔 뭘 할지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좀 더 안전한 것을 하기로 했어." 개구리가 말했어요. "미술이나, 체스 같은 것 말이야. 어쩌면 트럼펫을 배우게 될지도 몰라." 개구리의 친구들이 환호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친구들이 말했어요.
p30	"새 노래를 만들었어." 개구리가 말했어요. 노래는 다음과 같았어요. "빨리 달리는 건 너무 무서워 빨리 달리면 다칠 수 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왜냐하면 내 셔츠에 메달이 걸렸으니깐."
p31	개구리는 이제 빨리 달리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개구리는 트럼펫을 점점 잘 불고 있었어요. 사실, 개구리는 스스로 곧 최고가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혹시 아주 빨리 달리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를 여러분이 안다면, 개구리를 찾아가 보라고 말해 주는 게 어때요? 개구리가 그 친구를 도와줄 거에요. '로켓 팝니다, 속도감을 좋아하는 분을 위해. 이전 주인은 단 한 명이고,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수리를 조금 해야 해요)'
about the author 글쓴이의 말	나는 동화 쓰는 것을 좋아하고, 그중에서도 그림이 있는 동화를 쓰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그림을 직접 그리진 못해요. 정말 못 그리거든요.) 너무 빨리 가는 것을 즐기는 개구리처럼, 내 동화는 가끔 너무 실없어지곤 해요. 그러면 적당하게 만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해야 해요. 하지만 그것도 좋아요. 로켓을 타 본 적은 없지만, 보트를 탈 수는 있어요. 운이 좋게도, 작은 보트는 웬만해선 꽝! 하고 터지지 않거든요. 내가 너무 실없이 굴지만 않는다면 말이에요.